

## 서울지역 주부들의 식생활관리실태 조사 연구

유영상·노정미\*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원주전문대학 여성교양과\*

### A Survey Study on the Meal Management of Housewives in Seoul

Young-Sang Yoo and Jeang-Mi Noh\*

*Dept. of Home Economics, Dongguk University*

*Dept. of Women's Cultural Studies, Wonju National Junior College\**

####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nvestigate the current meal management situation and behaviors of the housewives in Seoul during the period January in 1993.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meal management by finding out problems and differences in future, which has been compared with the study of meal management in 1980.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by questionnaire about kitchen forms, cooking machines, foodstuffs buying forms, plan of the price in meal and meal management behaviors.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85% of the housewives had stand-up fashioned kitchen forms, and they were equipped with variety of cooking machines and high possession percentage that.
2. 66.7% of the housewives spent the price of meal under plan, 31.1% of them purchased foodstuffs daily.
3. The time spent in preparing the table of breakfast and lunch was about 60 minutes and dinner was about 90 minutes. The time spent in clearing the table of breakfast and lunch was about 20 minutes and dinner was about 40 minutes.
4. The numbers of daily cooking rice was the higher percentage twice a day than once a day, but increased higher percentage once a day than 1980's.
5. In preparing kimchi most of housewives were making it in their homes and number of making kimchi once a 15 day and a month was high percentage.
6. When they prepared meals they gave higher percentage to the tastes of families than nutrition . The number of preparing a side dish in breakfast and lunch was 3~4, and dinner was 5~6.

7. In most cases housewives cooked for themselves, and the number of husbands who help their wives for kitchen work was increased in group of younger housewives than older.
8. The environment of kitchen work is improved to many facility but not to be desired facility, and meal management behaviors is changing gradually into more convenience but not to be changing into more scientific forms.

Key words: Meal management, Housewives.

## I. 서 론

인간이 먹는다는 것은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이것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식생활에 담겨진 문화성은 민족생활의 유전으로 한민족의 식품소비형태, 조리법 및 식습관은 긴 역사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어 왔다. 즉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종교 및 전통적인 관습 등이 식생활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sup>1)</sup>

식생활은 가족의 욕구 중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부분이다. 따라서 가정생활관리에 있어 식생활은 금전과 시간소비의 비율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각 가정에서 취하게 되는 식품의 종류, 식사방법, 식품구매방법 등의 식생활양식은 그 가정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과 가정 외적 환경 즉 시장 구조 등과 같은 지역사회 조건에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식생활관리의 개념을 보면 현<sup>2)</sup>은 식사와 관계되는 모든 활동과 의사결정, 그리고 실천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을 식생활관리자라 하고 그 책임의 내용을 식생활관리라 하였으며, 윤<sup>3)</sup>은 식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여러 계획과 실행에 관계하는 경영, 관리라 했고 이는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다 변화되어 간다고 했다. Faye Kinder<sup>4)</sup>은 식사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 했다. 식생활관리는 식품과 영양이 관계하는 여러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생활관리를 담당하는 식생활관리자도 식품산업과 관계되는 여러 분야 및 가정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가정에서의 식생활관리는 가족의 요구나 수준에

따라 식생활 전반에 관계되는 영양상 균형을 이루고 기호에 맞는 식사계획,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식사내용구성, 시간과 에너지소비가 조화된 식사계획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sup>5)</sup>.

그러므로 가정에서 행해지는 식생활관리는 영양, 금전, 시간, 인력, 설비와 용구, 기호, 식습관 등의 여러 요소가 서로 깊은 상관성 아래 연계되어 이루어지므로 식생활관리자인 주부의 능력에 따라 가정의 식생활관리형태가 달라지게 된다.

우리 나라는 1980년 이후부터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현대화, 서구화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인 변화 즉 소득의 증가, 여성의 사회활동의 증대 및 생활양식의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특히 식품산업의 급성장으로 다양한 식품의 생산과 더불어 구매력이 증대되었고<sup>6)</sup> 이러한 과정에서 식생활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식생활관리자인 주부들의 식생활관리형태를 조사하여 1980년의 식생활관리실태<sup>6)</sup>와 비교 검토해서 그 동안의 변화와 오늘날 가정에서의 식생활관리상의 문제점을 규명하여 앞으로의 식생활관리의 합리성을 위한 개선점을 찾고자 실시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설문지로서 1980년의 전보<sup>6)</sup>를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문항의 성질에 따라 응답자가 해당사항을 선택하게 하였다. 1992년 8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타당도 검증을 한 뒤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는 1993년 3월 한 달간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지역의 주부들로 지역의 특성을 배제하고자 주거지역을 강남, 강북으로 나누었으며,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를 20, 30, 40, 50대 이상의 4군으로 나누어 무작위 추출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상황과 식생활관리실태로 주방구조 및 조리기구, 식생활비 예산계획 및 식품구매형태, 식생활관리행동을 파악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부하여 270부가 회수되었으나 분석대상으로 부적절한 것을 제외한 240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 2. 자료의 처리 및 분석방법

자료의 처리는 SPSS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였다. 조사된 내용의 분석은 각 문항의 빈도와 백분율을 계산하였으며 집단간 비율의 차이는  $\chi^2$ -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상황

본연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상황은 표 1과 같다. 주부의 교육수준은 고졸, 대졸 순으로 많았고, 국졸, 대학원 졸의 비율은 낮았으며, 주부의 직업은 대상자 70.6%가 전업주부였고 나머지 29.4%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이 80.4%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 수는 4명이 가장 많았고 6명 이상은 낮았다. 가정의 월수입은 60~140만원이 50%이상이고 가정의 가사형태는 주부가 혼자 한다 41.2%, 가족이 도운다 51.7%로 응답했다.

## 2. 주방의 구조 및 조리기구

주방의 구조는 조사대상자 부엌의 85% 이상이 입식구조였으며 절충식, 재래식도 5%정도로 나타났다. 일반주택에서 부엌의 형태가 절충식 및 재래식 구조인 경우가 15%, 취사용 연료로 연탄을 사용하는 경우가 3.6%로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 $p < 0.001$ ) 1980년의 전보<sup>6)</sup>에서 주방구조의 입식구조는 56.4%이었는데 본 결과로 보아 경제발전과 더불어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가정의 부엌구조도 많이 개선되었음을 볼 수가 있었다.

취사용 연료는 20대 주부군에서 도시가스(48.2%), LPG 가스(42.9%), 석유(5.4%) 순으로 많이 사용하였으며, 연탄(3.6%)을 사용하는 경우는 연령별 4개 집단 중 20대군 뿐이었다. 30, 40, 50대 이상 주부군은 모두 LPG가스(50%이상)를 가장 많이 사용했고 다음으로 도시가스(30~40%)를 사용했으며 전기는 4집단 모두 취사용 연료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의 전보<sup>6)</sup>에서는 연탄, 석유, 가스 모두 비슷하게 50%이상을 사용했으나 본 조사의 결과에서 석유와 연탄의 사용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어 취사용 연료로 보다 위생적이고 편리하며 효율적인 연료로 전환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조리용 기구로는 냉장고(97.9%), 가스 레인지(91.9%), 전기 밥솥(88.3%), 전기 믹서(67.5%), 전기 후라이팬(55.8%), 전자 레인지(40.0%), 그릇 건조기(30.8%), 가스 오븐(15.4%), 전기 레인지(인독스)(3.8%), 그릇 세척기(2.9%) 등의 순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80년도의 전보<sup>6)</sup>와 비교하여 가정용 전기 조리기구의 종류가 다양해졌고 또한 보유율도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오늘날 주부의 가사노동이 많이 편리해지고 단축되어졌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 3. 식생활비 계획 및 식품구매형태

### 1) 식생활비 계획

한달 수입에 대한 식비(주식, 부식, 간식비)의 비율(%)은 표 2와 같다.

한달 식비와 수입과의 관계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상황 변수 중 학력, 가족형태, 주거형태, 직업 유무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수입( $p < 0.05$ )과 연령대( $p < 0.001$ )별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즉 20, 30대 주부군에서는 20%이상~30%미만, 30%이상~40%미만 순으로 높았다. 40대 주부군에서는 30%이상~40%미만, 10%이상~20%미만 순으로 높았고, 50대 이상 주부군에서는 20%이상~30%미만이 가장 높았고 10%이상~20%미만 순으로 높았다. 모든 집단이 10%이상~40%미만이 8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20, 50대 이상 주부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상황

상황변수	집단	빈도(N)	백분율(%)
주부의 연령 (세)	20대	56	23.3
	30대	64	26.7
	40대	60	25.0
	50대 이상	60	25.0
주부의 교육수준	국졸	14	5.8
	중졸	24	10.0
	고졸	116	48.3
	대졸	75	31.3
	대학원 졸	11	4.6
주부의 직업	주부	170	70.8
	직업유	70	29.2
가족형태	핵가족	193	80.4
	시택동거 확대가족	31	12.9
	친정동거 확대가족	10	4.2
	기 타	6	2.5
가족수	2명	15	6.3
	3명	44	12.9
	4명	83	34.6
	5명	70	29.1
	6명	22	9.2
	7명	4	1.7
	8명	2	0.8
	주거형태	아파트	77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50	20.8
일반주택		113	47.1
가정의 월수입	60만원미만	6	2.5
	60만원이상~100만원미만	64	26.7
	100만원이상~140만원미만	57	23.8
	140만원이상~180만원미만	47	19.6
	180만원이상~220만원미만	32	13.3
	220만원이상~260만원미만	11	4.1
	260만원이상~300만원미만	8	3.3
	300만원이상	16	6.7
가정의 가사형태	주부 혼자 한다	99	41.2
	가족이 도운다	124	51.7
	상주 가정부 있다	2	0.8
	매일 파출부가 온다	4	1.7
	일있을 때만 파출부를 부른다	11	4.6
	합 계	240	100.0

군에서 식비비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life cycle에 의한 가족 구성원 형성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식생활비의 예산계획은 주부의 교육수준, 직업 유무, 가족의 형태, 주거형태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수입, 주부의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

표 2. 월수입 대비 식생활비(주식비+부식비+간식비) 관계

연령대 식생활비(%)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합 계	비 고
	N(%)	N(%)	N(%)	N(%)	N(%)	
10% 미만	2( 3.6)	5( 8.5)	0	1( 1.7)	8( 3.5)	$\chi^2=50.73$ df=21 p<0.001
10%이상~20%미만	7(12.5)	11(18.6)	20(33.3)	17(28.8)	55(24.2)	
20%이상~30%미만	24(42.9)	17(28.8)	11(18.3)	26(44.1)	78(34.4)	
30%이상~40%미만	13(23.2)	13(22.0)	23(38.3)	10(16.9)	59(26.0)	
40%이상~50%미만	4( 7.1)	2( 3.4)	4( 6.7)	4( 6.8)	14( 6.2)	
50%이상~60%미만	2( 3.6)	3( 5.1)	0	1( 1.7)	6( 2.6)	
60%이상~70%미만	0	1( 1.7)	2( 3.3)	0	3( 1.3)	
70%이상~80%미만	4( 7.1)	0	0	0	4( 1.8)	
합 계	56(100.0)	52(100.0)	60(100.0)	59(100.0)	227(100.0)	

표 3. 식생활비 예산계획

상황 변수	집 단	월단위	주단위	일단위	무계획	합 계	비 고
		N(%)	N(%)	N(%)	N(%)	N(%)	
연령	20대	27(48.2)	9(16.1)	7(12.5)	13(23.2)	56(100)	$\chi^2=25.63$ df=9 p<0.005
	30대	25(39.1)	5( 7.8)	3( 4.7)	31(48.4)	64(100)	
	40대	21(35.0)	10(16.7)	10(16.7)	19(31.7)	60(100)	
	50대 이상	27(50.0)	9(16.7)	3( 5.5)	15(27.8)	54(100)	
직업	유	27(38.6)	11(15.7)	3( 4.3)	29(41.4)	67(100)	N.S.
	무	73(44.5)	22(13.4)	20(12.2)	49(29.9)	164(100)	
교육 수준	국졸	4(28.6)	0	2(14.3)	8(57.1)	14(100)	N.S.
	중졸	11(47.8)	2( 8.7)	5(21.7)	5(21.8)	23(100)	
	고졸	47(41.2)	18(15.8)	12(10.5)	37(32.5)	114(100)	
	대졸	32(44.4)	11(15.3)	4( 5.6)	25(34.7)	72(100)	
	대원졸	6(54.5)	2(18.2)	0	3(27.3)	11(100)	
가족 형태	핵가족	76(40.5)	28(14.9)	16( 8.5)	68(36.3)	188(100)	N.S.
	시댁확대가족	15(48.4)	3( 9.7)	7(22.6)	6(19.4)	31(100)	
	친정확대가족	5(50.0)	2(20.0)	0	3(30.0)	10(100)	
	기 타	4(80.0)	0	0	1(20.0)	5(100)	
주거 형태	아파트	34(44.7)	17(22.4)	5( 6.6)	20(26.3)	76(100)	N.S.
	다세대·연립주택	20(40.0)	5(10.0)	6(12.0)	19(38.0)	50(100)	
	일반주택	46(42.6)	11(10.2)	12(11.1)	39(36.1)	108(100)	
월 수입 (만원)	60미만	4(66.6)	1(16.7)	1(16.7)	0	6(100)	$\chi^2=41.14$ df=21 p<0.01
	60이상~100만원	38(59.4)	5( 7.8)	8(12.5)	13(20.3)	64(100)	
	100이상~140만원	20(37.0)	3( 5.6)	4( 7.4)	27(50.0)	54(100)	
	140이상~180만원	10(21.7)	10(21.7)	5(10.9)	21(45.7)	46(100)	
	180이상~220만원	10(32.2)	12(38.7)	3( 9.7)	6(19.4)	31(100)	
	220이상~260만원	7(70.0)	0	1(10.0)	2(20.0)	10(100)	
	260이상~300만원	3(42.9)	1( 4.2)	0	3(42.9)	7(100)	
	300이상	8(50.0)	1( 6.3)	1( 6.3)	6(37.4)	16(100)	
합 계	100(42.7)	33(14.1)	23( 9.9)	78(33.3)	234(100)		
1980년의 전보결과 합 계	168(48.6)	72(20.8)	30( 8.7)	76(22.0)	346(100)		

이가 있었다( $p < 0.005$ ) (표 3). 20대, 40, 50대 이상 주부군들은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특히 한달 단위로 식생활비 지출계획을 세워서 사용한다고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했으나, 30대 주부군은 계획없이 사용하는 비율과 계획을 세워 지출하는 비율이 비슷했는데 이는 30대 주부군이 육아와 아동의 취학 등으로 인한 가사부담이 더 높은 연령대라 여겨져 이 때문이 아닌가 사료되었다. 김<sup>7)</sup>은 주부의 연령이 낮으면 식생활비 계획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했으나 본 결과는 20, 50대 이상 주부군들이 비슷하게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는 식비예산작성 및 식생활관리면에서 보다 계획적이라고 했으나 본 조사의 결과는 수치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전보<sup>6)</sup>에서는 계획 안 세운다는 22.0%, 월, 주, 일 단위로 세운다는 88.0%였는데 본 조사에서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보<sup>6)</sup>보다 식생활비 계획세우는 비율이 낮아졌음을 볼 수가 있었다.

식생활비를 무계획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로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식비의 예산을 세우는 것이 습관이 안되어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물가 변동, 수입의 불안정과 귀찮아서의 순으로 나타나 전보<sup>6)</sup>의 결과와 그 이유가 일치하였다.

임<sup>8)</sup>의 보고에서는 식비예산을 세우지 않는 이유로 귀찮아서와 수입의 변동 때문이라고 대답한 주부는 학력이 낮고 연령이 높으며 가족의 수입 또한 낮

표 4. 식생활비 예산을 세우지 않는 이유

상황 변수	집 단	습관이 안 됨	수 입 불일정	물가변동 심 해서	식구수의 변동심해	귀찮음	기 타	합 계	비 고
		N(%)	N(%)	N(%)	N(%)	N(%)	N(%)	N(%)	
연령	20대	10(34.5)	3(10.3)	7(24.1)	1( 3.4)	4(13.8)	4(13.8)	29(100)	$\chi^2=3.66$ df=15 $p < 0.01$
	30대	19(37.3)	5( 9.8)	13(25.5)	5( 9.8)	8(15.7)	1( 2.0)	51(100)	
	40대	18(50.0)	9(25.0)	6(16.7)	0	2( 5.6)	1( 2.8)	36(100)	
	50대 이상	11(44.0)	5(20.0)	0	0	8(32.0)	1( 4.0)	25(100)	
직업	유	21(41.2)	2( 3.9)	12(23.5)	4( 7.8)	12(23.5)	0	51(100)	$\chi^2=17.71$ df=5 $p < 0.01$
	무	37(41.1)	20(22.2)	14(15.6)	2( 2.2)	10(11.1)	7( 5.0)	90(100)	
교육 수준	국졸	5(41.7)	6(50.0)	0	0	1( 8.3)	0	12(100)	$\chi^2=47.10$ df=20 $p < 0.001$
	중졸	2(14.3)	5(35.7)	2(14.3)	2(14.3)	3(21.3)	0	14(100)	
	고졸	25(39.7)	11(17.5)	16(25.4)	0	6( 9.5)	5( 7.9)	63(100)	
	대졸	21(47.7)	0	8(18.2)	4( 9.1)	10(22.7)	1( 2.3)	44(100)	
	대원졸	5(62.5)	0	0	0	2(25.0)	1(12.0)	8(100)	
가족 형태	핵가족	53(46.9)	19(16.8)	21(18.6)	0	19(16.8)	1( 0.9)	113(100)	$\chi^2=69.59$ df=10 $p < 0.001$
	시대확대가족	3(14.3)	2(50.0)	5(23.8)	4(19.0)	1( 4.8)	6(28.6)	21(100)	
	친정확대가족	3(37.5)	1(12.5)	0	2(25.0)	2(25.0)	0	8(100)	
주거 형태	아파트	16(53.3)	2( 6.7)	2( 6.7)	0	9(30.0)	1( 3.3)	30(100)	$\chi^2=20.18$ df=10 $p < 0.001$
	다세대 · 연립주택	16(41.0)	8(20.5)	10(25.7)	2( 5.1)	3( 7.7)	0	39(100)	
	일반주택	26(36.1)	12(16.7)	14(19.4)	4( 5.6)	10(13.9)	6( 8.3)	72(100)	
월 수입 (만원)	60미만	2(66.7)	0	1(33.3)	0	0	0	3(100)	N.S.
	60이상~100미만	11(28.2)	7(17.9)	8(20.5)	4(10.3)	5(12.8)	4(10.3)	39(100)	
	100이상~140미만	14(43.8)	8(25.0)	6(18.8)	0	3( 9.3)	1( 3.1)	32(100)	
	140이상~180미만	12(42.9)	5(17.9)	2( 7.1)	2( 7.1)	5(17.9)	2( 7.1)	28(100)	
	180이상~220미만	8(42.1)	0	8(42.1)	0	3(15.8)	0	19(100)	
	220이상~260미만	1(33.3)	0	1(33.3)	0	1(33.4)	0	3(100)	
	260이상~300미만	2(40.0)	0	0	0	3( 6.0)	0	5(100)	
	300이상	8(66.6)	2(16.7)	0	0	2(16.7)	0	12(100)	
합 계		58(41.1)	22(15.6)	26(18.4)	6( 4.3)	22(15.6)	7( 5.0)	141(100)	

기 때문에 계획적 관리를 못한다고 사료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각 상황변수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있었다. 전보<sup>6)</sup>에서는 습관이 안되어서(60.5%), 물가 변동(25.0%), 수입의 불안정(11.8%) 순이었고, 본 결과에서는 습관이 안되어서(41.1%), 물가변동이 심해서(18.4%), 수입의 불안정. 귀찮음(15.6%) 순이었다. 이로 보아 이유의 순은 같았다.

2) 식품구입횟수 및 장소

식품을 구입하는 횟수는 조사대상자의 연령(p<

0.05), 직업 유무(p<0.05), 교육수준(p<0.001), 가족형태(p<0.01), 주거형태(p<0.005), 월수입(p<0.01)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표 5). 연령별로 보면 20대 주부군은 매일(32.1%), 1주일에 1번(25.0%) 순이었고, 30대는 1주일에 2번(26.6%), 매일, 1주일에 1번(25.0%) 순이었으며, 40대는 매일(51.7%), 1주일에 2번, 1주일에 2번(16.7%), 50대는 1주일에 2번(32.8%), 2일에 1번, 1주일에 1번(25.9%) 순으로 많았다. 직업이 있는 주부군은 1주일에 1번(34.3%), 매일(27.1%) 순이었고, 전업주

표 5. 식품의 구입 횟수

상황 변수	집 단	매 일	2일에 한번	1주일에 2번	1주일에 1번	합 계	비 고				
		N(%)	N(%)	N(%)	N(%)	N(%)					
연령	20대	18(32.1)	12(21.4)	12(21.4)	14(25.0)	56(100)	$\chi^2=20.29$ df=9 p<0.05				
	30대	16(25.0)	15(23.4)	17(26.6)	16(25.0)	64(100)					
	40대	31(51.7)	10(16.7)	10(16.7)	9(15.0)	60(100)					
	50대 이상	9(15.5)	15(25.9)	19(32.8)	15(25.9)	58(100)					
직업	유 무	19(27.1) 55(32.7)	11(15.7) 41(24.4)	16(22.9) 42(25.0)	24(34.3) 30(17.9)	70(100) 168(100)	$\chi^2=8.18$ , df=3 p<0.05				
	교육 수준	국졸 중졸 고졸 대졸 대원졸	7(50.0) 12(50.0) 43(37.7) 11(14.7) 1( 9.1)	4(28.6) 10(41.7) 23(20.2) 14(18.7) 1( 9.1)	3(21.4) 0 28(24.6) 23(30.0) 4(36.4)	0 2( 8.3) 20(17.5) 27(36.0) 5(45.4)		14(100) 24(100) 114(100) 75(100) 11(100)	$\chi^2=42.56$ df=12 p<0.001		
가족 형태	핵가족 시댁확대가족 친정확대가족 기타	49(25.4) 20(64.5) 3(30.0) 2(50.0)	47(24.4) 4(12.9) 1(10.0) 0	48(24.9) 4(12.9) 4(40.0) 2(50.0)	49(24.4) 3( 9.7) 2(20.0) 0	193(100) 31(100) 10(100) 4(100)	$\chi^2=27.47$ df=9 p<0.01				
	주거 형태	아파트 다세대·연리부택 일반주택	12(15.6) 12(24.0) 50(45.0)	20(26.0) 15(30.0) 17(15.3)	21(27.3) 12(24.0) 25(22.5)	25(31.2) 11(22.0) 19(17.1)		77(100) 50(100) 111(100)	$\chi^2=22.40$ df=6 p<0.005		
		월 수입 (만원)	60미만 60이상~100미만 100이상~140미만 140이상~180미만 180이상~220미만 220이상~260미만 260이상~300미만 300이상	0 24(37.5) 16(28.1) 14(30.4) 6(18.8) 3(30.0) 5(71.4) 6(33.3)	1(16.7) 16(25.0) 19(33.3) 9(19.6) 4(12.4) 0 2(28.6) 1( 6.7)	3(50.0) 10(15.6) 12(21.1) 13(28.3) 7(21.9) 6(60.0) 0 7(46.7)		2(33.3) 14(21.9) 10(17.5) 10(21.7) 15(46.9) 1(10.0) 0 2(13.3)		6(100) 64(100) 57(100) 46(100) 32(100) 10(100) 7(100) 16(100)	$\chi^2=41.14$ df=21 p<0.01
			합 계	74(31.1)	52(21.8)	58(24.4)		54(22.7)		238(100)	
1980년의 전보 결과 합 계	102(29.5)		133(38.4)	82(23.7)	29(8.4)	346(100)					

표 6. 아침식사 준비시 소요되는 평균시간

상황 변수	집 단	아침식사 준비시간					합 계 N(%)	비 고
		30분정도	60분정도	90분정도	120분정도	150분정도		
		N(%)	N(%)	N(%)	N(%)	N(%)		
연령	20대	13(24.5)	25(47.2)	11(20.8)	4( 7.5)	0	53(100)	$\chi^2=31.98$ df=12 p<0.05
	30대	12(22.6)	21(39.6)	17(32.1)	1( 1.9)	2( 3.8)	53(100)	
	40대	0	22(37.3)	32(54.2)	2( 3.4)	3( 5.1)	59(100)	
	50대이상	8(14.0)	23(40.4)	20(35.1)	6(10.5)	0	57(100)	
직업	유	17(27.4)	27(43.5)	15(24.3)	3( 4.8)	0	62(100)	$\chi^2=14.69$ p<0.05
	무	16(10.0)	64(40.0)	65(40.6)	10( 6.3)	5( 3.1)	160(100)	
교육 수준	국졸	0	7(53.8)	6(46.2)	0	0	13(100)	N.S.
	중졸	0	11(45.8)	10(41.7)	0	3(12.5)	24(100)	
	고졸	10( 9.3)	35(32.7)	48(44.9)	12(11.2)	2( 1.9)	107(100)	
	대졸	14(20.9)	36(53.7)	16(23.9)	1( 1.5)	0	67(100)	
	대원졸	9(81.8)	2(18.2)	0	0	0	11(100)	
가족 형태	핵가족	26(14.4)	75(41.4)	69(38.1)	9( 5.0)	2( 1.1)	181(100)	$\chi^2=28.62$ df=12 p<0.05
	시댁 확대가족	1( 3.6)	12(42.9)	9(32.1)	3(10.7)	3(10.7)	28(100)	
	친정 확대가족	3(37.5)	4(50.0)	2(25.0)	1(12.5)	0	8(100)	
	기타	3(100.0)	0	0	0	0	3(100)	
주거 형태	아파트	21(28.4)	31(41.9)	20(27.0)	0	2( 2.7)	74(100)	$\chi^2=26.41$ df=8 p<0.05
	다세대 · 연립주택	7(16.7)	16(38.1)	15(35.7)	3( 7.1)	1( 2.4)	42(100)	
	일반주택	5( 4.7)	44(41.5)	45(42.5)	10( 9.4)	2( 1.9)	106(100)	
월 수입 (만원)	60미만	0	2(33.3)	3(50.0)	1(16.7)	0	6(100)	N.S.
	60이상~100미만	9(15.0)	26(43.3)	24(40.0)	0	1( 1.7)	60(100)	
	100이상~140미만	6(11.8)	18(35.3)	21(41.2)	4( 7.8)	2( 3.9)	51(100)	
	140이상~180미만	4( 9.3)	25(58.1)	12(27.9)	2( 4.7)	0	43(100)	
	180이상~220미만	8(25.0)	10(31.3)	8(25.0)	4(12.5)	2( 6.2)	32(100)	
	220이상~260미만	3(30.0)	3(30.0)	4(40.0)	0	0	10(100)	
	260이상~300미만	1(20.0)	2(40.0)	1(20.0)	1(20.0)	0	5(100)	
	300이상	2(13.3)	5(33.3)	7(46.7)	1( 6.7)	0	15(100)	
가사 형태	주부 혼자 한다	9(10.2)	35(39.8)	39(44.3)	5( 5.7)	0	88(100)	$\chi^2=40.43$ df=16 p<0.005
	가족이 도운다	15(12.5)	53(44.2)	39(32.5)	8( 6.7)	5( 4.1)	120(100)	
	상주 가정부 있다	2(100.0)	0	0	0	0	2(100)	
	매일 파출부 온다	2(50.0)	2(50.0)	0	0	0	4(100)	
	일있을 때만 파출부 부름 부른다	5(63.5)	1(12.5)	2(23.0)	0	0	8(100)	
	합 계	33(14.9)	91(41.0)	80(36.0)	13( 5.9)	5( 2.2)	222(100)	

부군 경우에는 매일(32.7%), 1주일에 2번(25.0%) 순이었다. 교육수준에서는 국졸·고졸 주부군 경우 매일(50.0%), 2일에 1번(28.6%) 순이었고 고졸 주부군은 매일(37.7%), 1주일에 2번(24.6%) 순이었으며, 대졸·대학원졸 주부군들은 1주일에 1번(36.0%, 45.4%), 1주일에 2번(30.0%, 36.4%) 순으로

나왔다. 가족형태로는 핵가족 주부군은 매일(25.4%), 1주일에 2번(24.0%), 시댁 확대 가족 주부군은 매일(64.5%), 2일에 1번, 1주일에 2번(12.9%) 순이었고 기타 가족 주부군에서는 매일, 1주일에 2번(50.0%) 순으로 나왔다. 주거 형태별로는 아파트에서 사는 주부군은 1주일에 1번(31.2%), 1주일에



2번(27.3%) 순이었고 다세대·연립 주택의 주부군은 2일에 1번(30.0%), 매일, 1주일에 2번(24.0%) 순이었으며 일반주택의 주부군은 매일 (45.0%), 1주일에 2번(22.5%) 순이었다. 이로 보아 전업주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시택확대가족, 일반주택에 사는 경우일수록 매일 식품을 구입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sup>1)</sup>의 보고에서는 매일 구입하는 용이 62.6%로 본 결과(31.1%)보다 높았고, 전보에서는 2일에 한번(38.4%), 매일(29.5%), 주 2회(23.7%), 주 1회(8.4%) 순이라고 보고했는데 본 조사와 비교해 보면 매일 구입한다(31.1%)는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식품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로 20대 주부군은 슈퍼마켓(46.4%), 동네시장(42.9%) 순이었고, 30대 주부군은 동네시장(48.4%), 슈퍼마켓(28.1%), 농협직영매장(12.5%) 순으로 이용하였다. 40대 주부군은 동네시장(46.7%), 슈퍼마켓(33.3%) 순이었고, 50대 이상 주부군은 동네시장(38.3%), 슈퍼마켓(35.0%), 큰 도매시장(11.7%) 순으로 이용했다. 이를 1980년도와 비교해 보면 식품구입장소로 아직도 시장에서 많이 구입하나 그 비율이 낮아졌고 슈퍼마켓 이용률은 높아졌으며 또한 큰 도매시장 이용률은 낮아졌음을 알 수가 있었다.

#### 4. 식생활 관리행동

##### 1) 식사준비 및 뒤처리(설거지)시간

아침식사 준비시 소요되는 평균시간은 60분 정도(41.0%), 90분 정도(36.0%) 순이었고, 주부의 연령대( $p < 0.005$ ), 직업 유무( $p < 0.05$ ), 가족형태( $p < 0.05$ ), 주거형태( $p < 0.05$ ), 가사형태( $p < 0.005$ )에 따라 매우 유의적인 차이가 났다(표 6). 직업이 있는 주부군의 경우는 60분 정도(43.5%), 30분 정도(27.4%) 순이었고, 전업 주부군의 경우는 90분 정도(40.6%), 60분 정도(40.0%)가 비슷했으며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났고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준비시간이 짧았으나 유의적이지 않았다. 가족형태에서는 핵가족·시택확대가족의 주부군은 60분 정도(41.4, 42.9%), 90분 정도(38.1, 32.1%) 순이었고 친정확대가족 주부군에서는 60분

정도(50.0%), 30분 정도(37.5%) 순이었다.

주거형태에 따라서도 아파트에 사는 주부군은 60분 정도(41.9%), 30분 정도(27.0%) 순이었고 다세대 및 연립주택에 사는 주부군에서는 60분 정도(38.1%), 90분 정도(35.7%) 순이었으며, 일반주택에 사는 주부군은 90분 정도(42.5%), 60분 정도(41.5%) 순이었다.

가사형태에서 주부 혼자 일하는 군은 90분 정도(44.3%), 60분 정도(39.8%) 순이었고 가족이 도와주는 군은 60분 정도(44.2%), 90분 정도(32.5%) 순이었다. 상주 가정부 및 파출부가 있는 군은 30분 정도 걸린다가 50%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 이것으로 보아 가사일에 도움을 받는 주부군이 아침식사 준비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점심식사 준비시 소요되는 시간은 60분 정도(59.4%)가 가장 많았으며, 각 집단 모두 30~60분 정도가 80% 이상의 비율이 나왔으나 주부의 직업, 교육수준, 가족형태, 주거형태, 월수입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표 7).

저녁식사 준비시 소요되는 시간은 각 집단 모두 90분 정도(51.5%)로 가장 많았다(표 8). 직업 주부군에서는 90분 정도(59.6%), 120분 정도(15.7%), 60분(12.9%) 순이었고, 전업 주부군 경우에는 90분 정도(48.5%), 150분(18.6%), 120분 정도(17.4%) 순으로 차이가 났으나 유의적이지 않았다. 주거형태에 있어서 아파트에 사는 주부군은 90분 정도(55.3%), 120분 정도(18.4%), 150분 정도(15.8%) 순이었고, 다세대 및 연립주택에 사는 주부군은 90분 정도(70.0%), 120분 정도(17.1%), 60분 정도(10.0%) 순으로 각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났다( $P < 0.05$ ). 가사형태에서는 주부 혼자 하는 군과 가족이 도와주는 군 모두 90분 정도(54.6, 52.0%), 150분 정도(16.5, 17.1%) 순으로 비슷했고 상주 가정부가 있는 군은 60분 정도(100.0%), 매일 파출부가 오는 군에서는 90분 정도(100.0%)였고 일 있을 때 파출부 부르는 군은 120분 정도(80.0%)였다.

아침식사 뒤처리에 소요되는 평균시간은 20, 30, 50대 이상 주부들 경우에는 20분 정도가 5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주부군에서는 40분 정도가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9). 직업이 있는 주

표 7. 점심식사 준비시 소요되는 평균시간

상황 변수	집 단	점심식사 준비시간			N(%)	
		30분 정도 N(%)	60분 정도 N(%)	90분 정도 N(%)		
연령	20대	15(35.7)	24(57.1)	3( 7.2)	42(100)	$\chi^2=31.98$ df=12 p<0.005
	30대	12(27.3)	26(59.1)	6(13.6)	44(100)	
	40대	10(21.3)	31(66.0)	6(12.7)	47(100)	
	50대 이상	13(27.7)	26(55.3)	8(17.0)	47(100)	
직업	유	10(31.3)	19(59.4)	3( 9.4)	32(100)	N.S.
	무	40(27.0)	88(59.5)	20(13.5)	148(100)	
교육 수준	국졸	4(30.8)	9(69.2)	0	13(100)	N.S.
	중졸	9(42.8)	6(28.6)	6(28.6)	21(100)	
	고졸	22(25.0)	53(60.2)	13(14.8)	88(100)	
	대졸	14(25.5)	37(67.3)	4( 7.2)	55(100)	
	대원졸	1(33.3)	2(66.7)	0	3(100)	
가족 형태	핵가족	43(29.3)	86(58.5)	18(12.2)	147(100)	N.S.
	시댁확대가족	4(17.4)	14(60.9)	5(21.7)	23(100)	
	친정확대가족	1(12.5)	7(87.5)	0	8(100)	
	기타	2(100.0)	0	0	2(100)	
주거 형태	아파트	10(19.6)	34(66.7)	7(13.7)	51(100)	N.S.
	다세대·연립주택	15(41.7)	17(47.2)	4(11.1)	36(100)	
	일반주택	25(26.9)	56(60.2)	12(12.9)	93(100)	
월 수입 (만원)	60미만	0	1(25.0)	3(75.0)	4(100)	N.S.
	60이상~100미만	22(40.7)	25(46.3)	7(13.0)	54(100)	
	100이상~140미만	11(25.6)	26(60.5)	6(13.9)	43(100)	
	140이상~180미만	6(17.6)	27(79.4)	0	34(100)	
	180이상~220미만	8(38.1)	9(42.9)	4(19.0)	21(100)	
	220이상~260미만	0	6(85.7)	1(14.3)	7(100)	
	260이상~300미만	2(50.0)	2(10.0)	0	4(100)	
	300이상	1( 7.7)	10(76.9)	2(15.4)	13(100)	
가사 형태	주부 혼자 한다	22(29.3)	46(61.3)	7( 9.4)	75(100)	$\chi^2=64.96$ df=12 p<0.001
	가족이 도운다	27(29.3)	52(56.5)	13(14.2)	92(100)	
	상주 가정부 있다	0	1(50.0)	1(50.0)	2(100)	
	매일 파출부 온다	0	2(100.0)	0	2(100)	
	일있을 때만 파출부를 부른다	1(11.1)	6(66.7)	2(22.2)	9(100)	
	합 계		50(27.8)	107(59.4)	23(12.8)	

부군의 경우에는 40분 정도(44.7%), 20분 정도(39.8%) 순이었고 전업 주부경우에는 20분 정도(63.6%), 40분 정도(27.3%) 순으로 두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났으며(p<0.05) 가족 형태(P<0.005), 월수입(P<0.05)에 따라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났다.

점심식사 뒤처리에 걸리는 평균시간은 각 연령대 모두 20분 정도 소요된다가 가장 높게 나왔으나 학력이 낮을수록 빠르며(20분 정도의 비율이 가장 높음) 학력이 높을수록 40분 정도의 비율이 높고 유의적인 차이가 났다(p<0.05)(표 10). 주거형태에 따라서도 각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났으며 가사형

표 8. 저녁식사 준비시 소요되는 평균시간

상황 변수	집 단	저녁식사 준비시간					합 계 N(%)	비 고
		30분정도	60분정도	90분정도	120분정도	150분정도		
		N(%)	N(%)	N(%)	N(%)	N(%)		
연령	20대	2( 3.6)	8(14.3)	25(44.6)	15(26.8)	6(10.7)	56(100)	N.S.
	30대	1( 1.6)	7(10.9)	41(64.1)	6( 9.4)	9(14.1)	64(100)	
	40대	2( 3.3)	7(11.7)	32(53.3)	7(11.7)	12( 20.0)	60(100)	
	50대 이상	0	10(17.5)	24(42.1)	12(21.1)	11( 19.3)	57(100)	
직업	유	1( 1.4)	9(12.9)	41(59.6)	11(15.7)	8(11.4)	70(100)	N.S.
	무	4( 2.4)	23(13.8)	81(48.5)	29(17.3)	30(18.0)	167(100)	
교육 수준	국졸	0	2(14.3)	10(71.4)	2(14.3)	0	14(100)	$\chi^2=71.05$ df=16 p<0.001
	중졸	0	4(16.7)	12(50.0)	3(12.5)	5(20.8)	24(100)	
	고졸	4( 3.5)	14(12.3)	55(48.2)	17(14.9)	24(21.1)	114(100)	
	대졸	1( 1.4)	10(13.5)	38(51.4)	16(21.6)	9(12.2)	74(100)	
	대원졸	0	2(18.2)	7(63.6)	2(43.0)	0	11(100)	
가족 형태	핵가족	3( 1.6)	26(13.5)	100(52.1)	33(17.2)	30(15.6)	192(100)	N.S.
	시댁확대가족	1( 3.3)	4(13.3)	12(40.0)	5(16.7)	8(26.7)	30(100)	
	친정확대가족	1(10.0)	1(10.0)	8(80.0)	0	0	10(100)	
	기타	0	1(20.0)	2(40.0)	2(40.0)	0	5(100)	
주거 형태	아파트	0	8(10.5)	42(55.3)	14(18.4)	12(15.8)	76(100)	$\chi^2=17.97$ df=8 p<0.05
	다세대·연립주택	1( 2.0)	5(10.0)	35(70.0)	7(14.0)	2(4.0)	50(100)	
	일반주택	4( 3.6)	19(17.1)	45(40.1)	19(17.1)	24(21.6)	111(100)	
월 수입 (만원)	60미만	0	0	2(33.3)	2(33.3)	2(33.4)	6(100)	N.S.
	60이상~100미만	1( 1.6)	12(18.8)	35(54.7)	7(10.9)	9(14.0)	64(100)	
	100이상~140미만	3( 5.4)	5(8.9)	24(42.9)	17(30.4)	7(12.5)	56(100)	
	140이상~180미만	0	7(15.2)	26(56.5)	7(15.2)	6(13.1)	46(100)	
	180이상~220미만	0	7(21.9)	14(43.8)	2( 6.3)	9(28.1)	32(100)	
	220이상~260미만	0	1(10.0)	6(60.0)	3(30.0)	0	10(100)	
	260이상~300미만	1(14.3)	0	5(71.4)	0	1(14.3)	7(100)	
300이상	0	0	10( 6.3)	2(12.5)	4(25.0)	16(100)		
가사 형태	주부 혼자 한다	1( 1.0)	14(14.4)	53(54.6)	13(13.4)	16(16.5)	97(100)	$\chi^2=71.05$ df=16 p<0.001
	가족이 도운다	4( 3.3)	15(12.2)	64(52.0)	19(15.4)	21(17.1)	123(100)	
	상주 가정부 있다	0	2(100.0)	0	0	0	2(100)	
	매일 파출부 온다	0	0	4(100.0)	0	0	4(100)	
	일있을 때만 파출부를 부른다	0	1(10.0)	1(10.0)	8(80.0)	1(10.0)	10(100)	
합 계		5( 2.1)	32(13.5)	122(51.5)	40(16.9)	38(16.0)	237(100)	

태에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났다(p<0.001).

저녁식사 뒤처리에 소요되는 평균시간은 20, 30, 40대 주부군들은 40분 정도 걸린다가 가장 높게 나왔으나 50대 이상 주부군은 20분 정도가 더 높게 나왔다(표 11).이상의 결과들로 보아 식사준비시간 및 뒤처리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은 전보에서

와 같이 저녁식사시간대였으며 이것은 우리 나라 식사형태가 저녁식사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기<sup>6,9)</sup>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 조리법 및 조리횟수

가정에서 자주 이용되는 조리법은 국(98.0%), 찌

표 9. 아침식사 뒤처리(설거지)시 소요되는 평균시간

상황 변수	집 단	아침식사 뒤처리시간					합 계 N(%)	비 고
		30분정도	60분정도	90분정도	120분정도	150분정도		
		N(%)	N(%)	N(%)	N(%)	N(%)		
연령	20대	24(51.1)	16(34.0)	5(10.6)	0	3( 6.3)	47(100)	N.S.
	30대	26(50.0)	16(30.8)	5( 9.6)	3(5.8)	2( 3.8)	52(100)	
	40대	21(35.0)	36(60.0)	3( 5.0)	0	0	60(100)	
	50대 이상	28(49.1)	19(33.4)	4( 7.0)	4( 7.0)	2( 3.5)	57(100)	
직업	유	35(63.6)	15(27.3)	4( 7.3)	1( 1.8)	0	55(100)	$\chi^2=11.06$ , df=4 p<0.05
	무	64(39.8)	72(44.7)	12( 7.5)	6( 3.7)	7( 4.3)	161(100)	
교육 수준	국졸	9(69.2)	4(30.8)	0	0	0	13(100)	N.S.
	중졸	12(50.0)	9(37.5)	1( 4.2)	2( 8.3)	0	24(100)	
	고졸	40(37.0)	45(41.7)	11(10.2)	5( 4.6)	7( 6.5)	108(100)	
	대졸	30(48.4)	28(45.2)	4( 6.5)	0	0	62(100)	
	대원졸	8(88.9)	1(11.1)	0	0	0	9(100)	
가족 형태	핵가족	75(43.6)	73(42.4)	13( 7.6)	7( 4.1)	4( 2.3)	172(100)	$\chi^2=39.09$ df=12 p<0.005
	시댁확대가족	15(50.0)	10(33.3)	2( 0.7)	0	3(10.0)	30(100)	
	친정확대가족	5(50.0)	4(40.0)	1(10.0)	0	0	10(100)	
	기타	4(100.0)	0	0	0	0	4(100)	
주거 형태	아파트	35(49.3)	28(39.4)	6( 8.5)	0	2( 2.8)	71(100)	N.S.
	다세대·연립주택	17(43.6)	19(48.7)	3( 6.7)	0	0	39(100)	
	일반주택	47(44.4)	40(37.7)	7( 6.6)	7( 6.6)	5( 4.7)	106(100)	
월 수입 (만원)	60미만	0	3(60.0)	0	2(40.0)	0	5(100)	$\chi^2=46.91$ df=28 p<0.05
	60이상~100미만	32(53.3)	18(30.0)	4( 6.7)	2( 0.3)	4( 6.7)	60(100)	
	100이상~140미만	25(51.0)	21(42.9)	1( 2.0)	0	2( 4.1)	49(100)	
	140이상~180미만	16(40.0)	18(45.0)	6(15.0)	0	0	40(100)	
	180이상~220미만	13(43.4)	13(43.3)	2( 6.7)	1( 3.3)	1( 3.3)	30(100)	
	220이상~260미만	5(50.0)	4(40.0)	1(10.0)	0	0	10(100)	
	260이상~300미만	3(50.0)	2(33.3)	1(16.7)	0	0	6(100)	
	300이상	5(35.7)	8(57.1)	1( 7.2)	0	0	14(100)	
가사 형태	주부 혼자 한다	42(47.7)	28(31.8)	8( 9.1)	5( 5.7)	5( 5.7)	88(100)	N.S.
	가족이 도운다	50(45.1)	49(44.1)	8( 7.2)	2( 1.8)	2( 1.8)	111(100)	
	상주 가정부 있다	2(100.0)	0	0	0	0	2(100)	
	매일 파출부 온다	2(50.0)	2(50.0)	0	0	0	4(100)	
	일있을 때만 파출 부를 부른다	3(27.2)	8(62.8)	0	0	0	11(100)	
	합 계		99(45.9)	87(40.3)	16( 7.4)	7( 3.2)	7( 3.2)	

개(63.7%), 숙채(41.4%), 생채(사라다포함)(32.8%), 구이(31.6%), 조림(19.0%), 부침(14.6%), 튀김(5.8%) 순으로 나타났다. 각 연령의 주부 모두 국, 찌개의 조리법을 많이 이용했고, 나머지 조리법은 연령대 별로 다소 차이가 났다. 즉 20대 주부군에서는 구이, 숙채, 생채, 조림, 부침, 튀김 순이었으며, 30

대 주부군은 숙채, 구이, 조림, 생채, 부침, 튀김 순으로 많이 이용했다. 40대 주부군에서는 숙채, 생채, 조림, 구이, 부침, 튀김 순이었으며, 50대 이상 주부군은 숙채, 구이, 생채, 부침, 튀김 순으로 많이 이용했다.

밥짓는 횟수는 주부의 연령(p<0.01), 직업 유무

표 10. 점심식사 뒤처리(설거지)시 소요되는 평균시간

상황 변수	집 단	점심식사 뒤처리시간			합 계 N(%)	비 고
		20분 정도	40분 정도	60분 정도		
		N(%)	N(%)	N(%)		
연령	20대	25(59.5)	13(31.0)	4( 9.5)	42(100)	N.S.
	30대	26(60.5)	13(30.2)	4( 9.3)	43(100)	
	40대	33(68.8)	15(31.3)	0	48(100)	
	50대 이상	34(69.4)	11(22.4)	4( 8.2)	49(100)	
직업	유	21(65.6)	11(34.4)	0	32(100)	N.S.
	부	97(64.7)	41(27.3)	12( 8.0)	150(100)	
교육 수준	국졸	11(84.6)	2(15.4)	0	13(100)	$\chi^2=17.32$ df=8 p<0.05
	중졸	14(70.0)	6(30.0)	0	20(100)	
	고졸	57(62.6)	22(24.2)	12(13.2)	91(100)	
	대졸	34(63.0)	20( 8.0)	0	54(100)	
	대원졸	2(50.0)	2(50.0)	0	4(100)	
가족 형태	핵가족	94(63.9)	43(29.3)	10( 6.8)	147(100)	N.S.
	시댁확대가족	17(68.0)	6(24.0)	2( 8.0)	25(100)	
	친정확대가족	5(62.5)	3(37.5)	0	8(100)	
	기타	2(100.0)	0	0	2(100)	
주거 형태	아파트	29(56.9)	20(39.2)	2( 3.9)	51(100)	$\chi^2=11.94$ df=8 p<0.05
	다세대·연립주택	23(63.9)	13(36.1)	0	36(100)	
	일반주택	66(69.5)	19(20.0)	10(10.5)	95(100)	
월 수입 (만원)	60미만	0	2(50.0)	2(50.0)	4(100)	N.S.
	60이상~100미만	33(61.1)	15(27.8)	6(11.1)	54(100)	
	100이상~140미만	30(68.2)	12(27.3)	2( 4.5)	44(100)	
	140이상~180미만	27(77.1)	8(22.9)	0	35(100)	
	180이상~220미만	11(57.9)	7(36.8)	1( 5.3)	19(100)	
	220이상~260미만	5(71.4)	2(28.6)	0	7(100)	
	260이상~300미만	5(83.3)	1(16.7)	0	6(100)	
	300이상	7(53.8)	5(38.5)	1( 7.7)	13(100)	
가사 형태	주부 혼자 한다	53(69.7)	13(17.1)	10(13.2)	76(100)	$\chi^2=27.10$ df=8 p<0.001
	가족이 도운다	60(64.5)	31(33.3)	2( 2.2)	93(100)	
	상주 가정부 있다	2(100.0)	0	0	2(100)	
	매일 파출부 온다	0	2(100.0)	0	2(100)	
	일있을 때만 파출부를 부른다	3(33.3)	6(66.7)	0	9(100)	
	합 계	118(64.8)	52(28.6)	12( 6.6)	182(100)	

( $p<0.001$ ), 교육수준( $p<0.001$ ), 가족형태( $p<0.005$ ), 주거형태( $p<0.05$ ) 및 가사형태( $p<0.05$ )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났다. 밥짓는 횟수로는 모두 1일 2회(58.8%)가 가장 높았으나, 20대 50대 이상 주부군들 경우에 1일 1회도 40%가 넘게 나왔다(표 12). 직업이 있고 교육수준이 높고 핵가족이며

아파트에 사는 주부들일수록 1일 1회 밥짓는 율이 높았으며 가사형태에서 보면 상주 가정부가 있는 주부군과 가족의 도움을 받는 주부군에서 1일 2회 밥짓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높았다. 본 결과들을 1980년도와 비교해 보면 1일 2회 밥짓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1일 1회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표 11. 저녁식사 뒤처리(설거지)시 소요되는 평균시간

상황 변수	집 단	저녁식사 뒤처리시간					합 계 N(%)	비 고				
		20분정도	40분정도	60분정도	100분정도	120분정도						
		N(%)	N(%)	N(%)	N(%)	N(%)						
연령	20대	14(25.0)	27(48.2)	11(19.6)	2(3.6)	2( 3.6)	56(100)	$\chi^2=23.87$ df=12 p<0.05				
	30대	15(23.4)	31(48.4)	13(20.3)	3(4.7)	2( 3.1)	64(100)					
	40대	19(31.7)	35(58.3)	6(10.0)	0	0	60(100)					
	50대 이상	22(36.7)	18(30.0)	12(20.0)	1(1.7)	7(11.7)	60(100)					
직업	유 부	21(30.0) 49(28.8)	35(50.0) 76(44.7)	9(12.9) 33(19.4)	3(4.3) 3(1.8)	2( 2.9) 9( 5.3)	70(100) 170(100)	N.S.				
	교육 수준	국졸 중졸 고졸 대졸 대원졸	8(57.1) 13(54.2) 28(24.1) 18(24.0) 3(27.3)	4(28.6) 8(33.3) 57(49.2) 39(52.0) 3(27.3)	2(14.3) 1( 4.2) 22(19.0) 14(18.7) 3(27.3)	0 0 2(1.7) 4(5.3) 0	0 2( 8.3) 7( 6.0) 0 2(18.1)		14(100) 24(100) 116(100) 75(100) 11(100)	$\chi^2=30.79$ df=16 p<0.05		
가족 형태	핵가족 시댁확대가족 친정확대가족 기타	57(29.5) 5(16.1) 5(50.0) 3(50.0)	85(44.0) 21(67.7) 2(20.0) 3(50.0)	36(18.7) 3(9.7) 3(30.0) 0	6(3.1) 0 0 0	9( 4.7) 2( 6.5) 0 0	193(100) 31(100) 10(100) 6(100)	N.S.				
	주거 형태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일반주택	19(24.7) 12(24.0) 39(34.5)	39(50.6) 28(56.0) 44(38.9)	14(18.2) 6(12.0) 22(19.5)	0 4(8.0) 2(1.8)	5( 6.5) 0 6( 5.3)		77(100) 50(100) 113(100)	$\chi^2=17.97$ df=8 p<0.05		
		월 수입 (만원)	60미만 60이상~100미만 100이상~140미만 140이상~180미만 180이상~220미만 220이상~260미만 260이상~300미만 300이상	0 20(31.0) 24(42.1) 10(21.3) 8(25.0) 3(30.0) 3(37.5) 2(12.5)	3(50.0) 25(39.1) 22(38.4) 27(57.4) 15(46.9) 6(60.0) 5(62.5) 8(50.0)	3(50.0) 13(20.3) 6(10.5) 8(17.0) 5(15.6) 1(10.0) 0 6(37.5)	0 0 3(5.3) 2(4.3) 1(3.1) 0 0 0		0 6( 9.4) 2( 3.5) 0 3( 9.4) 0 0 0		6(100) 64(100) 57(100) 47(100) 32(100) 10(100) 8(100) 16(100)	N.S.
			가사 형태	주부 혼자 한다 가족이 도운다 상주 가정부 있다 매일 파출부 온다 일있을 때만 파출 부를 부른다	32(32.3) 36(29.0) 0 2(50.0) 0	41(41.4) 61(49.2) 2(100.0) 2(50.0) 5(45.5)	20(20.2) 16(12.9) 0 0 6(54.5)		2(2.0) 4(3.2) 0 0 0		4( 4.0) 7( 5.6) 0 0 0	
합 계	70(29.2)			111(46.2)	42(17.5)	6(2.5)	11( 4.6)	240(100)				

수 있는데 이것은 전기밥솥 등 주방용 전기기구의 성능 향상 및 보급률 증가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밥 지을 때 주로 이용하는 조리기구로는 전기밥솥(47.9%), 압력밥솥(40.8%)순이었으며, 20, 50대 이상 주부군들은 전기밥솥(57.1, 58.3%), 압력솥(33.9,

28.3%) 순으로 사용했으나 30, 40대 주부군들은 압력솥(54.7, 45.0%)이 전기밥솥(37.5, 40.0%)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김치 준비하는 형태는 주부의 연령(p<0.001), 직업 유무(p<0.001), 교육수준(p<0.001), 가족형태(p<0.001), 주거형태(p<0.001), 월수입(p<0.05)

표 12. 밥짓는 횟수

상황 변수	집 단	1일1회	1일2회	1일3회	1일4회	2일1회	합 계	비 고
		N(%)	N(%)	N(%)	N(%)	N(%)	N(%)	
연령	20대	23(41.1)	30(53.6)	1( 1.8)	2( 3.6)	0	56(100)	$\chi^2=28.19$ df=12 p<0.01
	30대	19(29.7)	35(54.7)	6( 9.4)	4( 6.3)	0	64(100)	
	40대	12(20.0)	46(76.7)	2( 3.3)	0	0	60(100)	
	50대 이상	26(43.3)	30(50.0)	2( 3.3)	0	2(3.3)	60(100)	
직업	유	40(57.1)	25(35.7)	0	5( 7.1)	0	70(100)	$\chi^2=39.60$ p<0.001
	무	40(23.5)	116(68.2)	11( 6.5)	1( 0.6)	2(1.2)	170(100)	
교육 수준	국졸	4(28.6)	10(71.4)	0	0	0	14(100)	$\chi^2=49.56$ df=4 p<0.001
	중졸	6(25.0)	14(58.3)	4(16.7)	0	0	24(100)	
	고졸	32(27.8)	78(67.0)	4( 3.5)	0	2(1.7)	116(100)	
	대졸	27(36.0)	39(52.0)	3( 4.0)	6( 8.0)	0	75(100)	
	대원졸	11(100.0)	0	0	0	0	11(100)	
가족 형태	핵가족	70(36.3)	111(57.5)	6( 3.1)	6( 3.1)	0	193(100)	$\chi^2=32.70$ df=12 p<0.005
	시댁확대가족	3( 9.7)	21(67.7)	5(16.1)	0	2(6.5)	31(100)	
	친정확대가족	5(50.0)	5(50.0)	0	0	0	10(100)	
	기타	2(33.3)	4(66.7)	0	0	0	6(100)	
주거 형태	아파트	33(42.9)	36(46.8)	4( 5.2)	4( 5.2)	0	77(100)	$\chi^2=18.94$ df=8 p<0.05
	다세대·연립주택	19(38.0)	29(58.0)	0	2(4.0)	0	50(100)	
	일반주택	28(24.8)	76(67.3)	7( 6.2)	0	2(1.8)	113(100)	
월 수입 (만원)	60미만	4(66.7)	2(33.3)	0	0	0	6(100)	N.S.
	60이상~100미만	15(23.4)	40(62.5)	6( 9.4)	1( 1.6)	2(3.1)	64(100)	
	100이상~140미만	20(35.0)	35(61.4)	1( 1.8)	1( 1.8)	0	57(100)	
	140이상~180미만	14(29.8)	31(66.0)	0	2( 4.2)	0	47(100)	
	180이상~220미만	15(46.9)	14(43.8)	2( 6.2)	1( 3.1)	0	32(100)	
	220이상~260미만	5(50.0)	4(40.0)	0	1(10.0)	0	10(100)	
	260이상~300미만	3(37.5)	5(50.0)	1(12.5)	0	0	8(100)	
	300이상	4(25.0)	11(68.8)	1( 6.2)	0	0	16(100)	
가사 형태	주부 혼자 한다	34(34.3)	52(52.5)	6( 6.1)	5( 5.1)	2(2.0)	99(100)	$\chi^2=36.72$ df=20 p<0.05
	가족이 도운다	36(29.0)	83(66.9)	5( 4.1)	0	0	124(100)	
	상주 가정부 있다	0	2(100.0)	0	0	0	2(100)	
	매일 파출부 온다	2(50.0)	2(50.0)	0	0	0	4(100)	
	일있을 때만 파출부를 부른다	8(72.7)	2(18.2)	0	1( 9.1)	0	11(100)	
	합 계	80(33.3)	141(58.8)	11( 4.6)	6( 2.5)	2(0.8)	240(100)	
1980년의 전보결과 합 계	55(45.9)	253(73.1)	36(10.4)	2( 0.6)		346(100)		

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표 13). 20, 30대 주부군은 집에서 꼭 담가먹는다(51.8, 81.3%), 친척집에서 가져다 먹는다(26.8, 10.9%) 순이었다. 40대 주부군은 집에서 꼭 담가먹는다(86.7%), 거의 담가먹고 가끔 사 먹는다(10.0%) 순이었고 50대 이

상 주부군은 95%이상이 집에서 담가먹는다고 응답했다. 직업이 있는 주부군은 집에서 꼭 담가먹음(66.7%), 친척집에서 갔다 먹음(21.4%) 순이었으나 전업 주부군은 88.8%가 집에서 꼭 담가먹는다고 했다. 이 결과들을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집에서 담가먹는

표 13. 김치준비 형태

상황 변수	집 단	집에서꼭 담가먹음	거의담가먹고 가끔사먹음	거의사먹고 가끔담가먹음	친척집에서 갔다먹음	합 계	비 고
		N(%)	N(%)	N(%)	N(%)	N(%)	
연령	20대	29( 51.8)	10(17.9)	2(5.6)	15(26.8)	56(100)	$\chi^2=41.83$ df=9 p<0.001
	30대	52( 81.3)	5( 7.8)	0	7(10.9)	64(100)	
	40대	52( 86.7)	6(10.0)	0	2( 3.3)	60(100)	
	50대 이상	57( 95.0)	0	1(1.7)	2( 3.3)	60(100)	
직업	유	39( 66.7)	14(20.0)	2(2.9)	15(21.4)	70(100)	$\chi^2=33.44$ p<0.001
	부	151( 88.8)	7( 4.1)	1(0.6)	11( 6.5)	170(100)	
교육 수준	국졸	14(100.0)	0	0	0	14(100)	$\chi^2=35.80$ df=12 p<0.001
	중졸	24(100.0)	0	0	0	24(100)	
	고졸	101( 87.1)	6( 5.2)	1(0.9)	8( 6.9)	116(100)	
	대졸	45( 60.0)	13(17.3)	2(2.7)	15(20.0)	75(100)	
	대원졸	6( 54.5)	2(18.2)	0	3(27.3)	11(100)	
가족 형태	핵가족	150( 77.7)	14( 7.3)	3(1.6)	26(13.5)	193(100)	$\chi^2=29.23$ df=9 p<0.001
	시댁확대가족	29( 93.5)	2( 6.5)	0	0	31(100)	
	친정확대가족	5( 50.0)	5(50.0)	0	0	10(100)	
	기타	6(100.0)	0	0	0	6(100)	
주기 형태	아파트	52( 67.5)	11(14.3)	3(3.9)	11(14.3)	77(100)	$\chi^2=41.56$ df=6 p<0.001
	다세대·연립주택	30( 60.0)	9(18.0)	0	11(22.0)	50(100)	
	일반주택	108( 95.6)	1( 0.9)	0	4( 3.5)	113(100)	
월 수입 (만원)	60미만	3( 50.0)	0	0	3(50.0)	6(100)	$\chi^2=43.45$ df=21 p<0.05
	60이상~100미만	54( 84.4)	3( 4.7)	0	7(10.9)	64(100)	
	100이상~140미만	49( 86.0)	3( 5.3)	1(1.7)	4( 7.0)	57(100)	
	140이상~180미만	28( 59.6)	10(21.3)	1(2.1)	8(17.0)	47(100)	
	180이상~220미만	24( 72.7)	3( 9.1)	1(3.0)	4(12.1)	32(100)	
	220이상~260미만	8( 80.0)	2(20.0)	0	0	10(100)	
	260이상~300미만	8(100.0)	0	0	0	8(100)	
	300이상	16(100.0)	0	0	0	16(100)	
가사 형태	주부 혼자 한다	79( 79.8)	2( 2.0)	1(1.0)	17(17.2)	99(100)	N.S.
	가족이 도운다	103( 83.1)	12( 9.7)	2(1.6)	7( 5.6)	124(100)	
	상주 가정부 있다	0	2(100.0)	0	0	2(100)	
	매일 파출부 온다	0	2(50.0)	0	2(50.0)	4(100)	
	일있을 때만 파출 부를 부른다	8( 72.7)	3(27.3)	0	0	11(100)	
	합 계	190( 79.2)	21( 8.8)	3(1.3)	26(10.8)	240(100)	

비율이 높고 친척집에서 가져다 먹는 비율이 낮았으며 사먹는 율이 매우 낮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직업이 있고 학력이 높으며 핵가족이고 연령이 낮으며 아파트에 사는 주부들일수록 집에서 담가먹는 율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월수입에서는 수입이 많을수록 집에서 담가 먹는 율이 높아짐을 볼 수가

있었다.

문<sup>11)</sup>은 김치를 집에서 담가먹는 비율이 96.4%로 높았다고 했으며 이<sup>12)</sup>도 김장과 김치류를 직접 만들어 먹는 비율이 90% 이상이었던 보고로 보아 아직까지 김치만은 각 가정의 가정의 맛을 존중하고 파는 김치의 맛보다 좋게 여기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특히 우리 나라 주부들의 식생활 중에서 상품대체 수준 중 전통음식의 상품대체 수준이 가장 낮은 편이나 전통음식중의 장류와 밑반찬류는 70%, 젓갈류는 51%를 구입해 먹는 것<sup>9)</sup>을 비교해 볼 때 김치를

사 먹는 율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 연구하여 주부들의 기호에 맞는 형태로 상품화하면 그만큼 주부들의 가사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김치 담그는 횟수는 주부의 교육수준( $p < 0.05$ ),

표 14. 김치 담그는 횟수

상황 변수	집 단	1달에 1번	15일에 1번	10일에 1번	7일에 1번	3일에 1번	기 타	합 계	비 고
		N(%)	N(%)	N(%)	N(%)	N(%)	N(%)	N(%)	
연령	20대	8(20.0)	18(45.0)	10(25.0)	2( 5.0)	0	2(5.0)	40(100)	N.S.
	30대	14(24.1)	22(37.9)	10(17.2)	10(17.2)	2( 3.5)	0	58(100)	
	40대	9(15.5)	27(46.6)	17(29.3)	4( 6.9)	0	1(1.7)	58(100)	
	50대 이상	13(22.4)	28(48.3)	9(15.5)	6(10.3)	2( 3.4)	0	58(100)	
직업	유	11(20.0)	20(36.4)	12(21.8)	9(16.4)	2( 3.6)	1(1.8)	55(100)	N.S.
	무	33(20.8)	75(47.2)	34(21.4)	13( 8.2)	2( 1.3)	2(1.3)	159(100)	
교육 수준	국졸	2(14.3)	7(50.0)	3(21.4)	2(14.3)	0	0	14(100)	$\chi^2=37.51$ df=20 p<0.05
	중졸	7(29.2)	9(37.5)	6(25.0)	2( 8.3)	0	0	24(100)	
	고졸	21(19.4)	49(45.4)	25(23.1)	12(11.1)	0	1(0.9)	108(100)	
	대졸	14(23.7)	23(39.0)	12(20.3)	6(10.2)	2( 3.4)	2(3.4)	59(100)	
	대원졸	0	7(77.8)	0	0	2(22.2)	0	9(100)	
가족 형태	핵가족	37(21.9)	73(43.2)	38(22.5)	15( 8.8)	4( 2.4)	2(1.2)	169(100)	N.S.
	시댁확대가족	7(17.1)	12(38.7)	5(16.1)	6(19.4)	0	1(3.2)	31(100)	
	친정확대가족	0	6(60.0)	3(30.0)	1(10.0)	0	0	10(100)	
	기타	0	4(100.0)	0	0	0	0	4(100)	
주거 형태	아파트	18(27.7)	30(46.2)	6( 9.2)	5( 7.7)	4( 6.2)	2(3.1)	65(100)	$\chi^2=21.47$ df=10 p<0.05
	다세대·연립주택	7(17.1)	18(43.9)	10(24.4)	6(14.6)	0	0	41(100)	
	일반주택	19(17.6)	47(43.5)	30(27.8)	11(10.2)	0	1(0.9)	108(100)	
월 수입 (만원)	60미만	0	3(100.0)	0	0	0	0	3(100)	N.S.
	60이상~100미만	9(15.8)	25(43.9)	11(19.3)	10(17.5)	2( 3.5)	0	57(100)	
	100이상~140미만	15(27.3)	20(36.4)	14(25.5)	5( 9.0)	0	1(1.8)	55(100)	
	140이상~180미만	5(13.5)	20(54.1)	7(18.9)	3( 8.1)	0	2(5.4)	37(100)	
	180이상~220미만	10(35.7)	11(39.3)	5(17.9)	0	2( 7.1)	0	28(100)	
	220이상~260미만	3(30.0)	3(30.0)	2(20.0)	2(20.0)	0	0	10(100)	
	260이상~300미만	0	3(37.5)	3(37.5)	2(25.0)	0	0	8(100)	
	300이상	10(12.5)	10(62.5)	4(25.0)	0	0	0	16(100)	
가사 형태	주부 혼자 한다	17(20.5)	41(49.4)	18(21.7)	5( 6.0)	2( 2.4)	0	83(100)	$\chi^2=38.19$ df=20 p<0.01
	가족이 도운다	24(20.9)	43(37.4)	28(24.3)	17(14.8)	2( 1.7)	1(0.9)	115(100)	
	상주 가정부 있다	0	2(100.0)	0	0	0	0	2(100)	
	매일 파출부 온다	1(33.3)	2(66.7)	0	0	0	0	3(100)	
	일있을 때만 파출부를 부른다	2(18.2)	7(63.6)	0	0	0	2(18.2)	11(100)	
	합 계	44(20.5)	95(44.4)	46(21.5)	22(10.3)	4( 1.9)	3(1.4)	214(100)	
1980년의 전보결과 합 계			40(11.6)	107(30.9)	156(45.0)	39(11.3)	4(1.2)	346(100)	

주거형태(p<0.05), 가사형태(p<0.01)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났다(표 14). 20, 40대 주부군들은 15일에 1번(45.0, 46.6%), 10일에 1번(25.0, 29.3%) 순이었고, 30, 50대 이상 주부군들은 15일에 1번(37.9, 48.3%), 한 달에 1번(24.1, 22.4%) 순이었다. 주거형태에서 보면 아파트에 사는 주부들은 15일에 1번(46.2%), 1달에 한번(27.7%) 순이었으나, 다세대·연립주택 및 일반주택에서 사는 주부군은 15일에 1번(43.9, 43.5%), 10일에 1번(24.4%, 27.8%) 순이었다. 교육수준에서 보면 국졸·고졸 주부군들은 15일에 1번(50.0, 45.4%), 10일에 1번(21.4, 23.1%)

순이었고 중졸·대졸 주부군들은 15일에 1번(37.5, 39.0%), 1달에 1번(29.2, 23.7%) 순이었으며 대원졸 주부군은 15일에 1번(77.8%), 3일에 1번(22.2%) 순으로 나왔다.

1980년도의 전보<sup>6)</sup>에서는 김치 담그는 횟수로 7~10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본 결과는 15일에 1번(44.4%)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김치 담그는 횟수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냉장고의 높은 보급률과 좋아진 성능으로 김치의 장기보관이 가능해진 것과 김치를 먹는 양이 준 것이 아닌가 사료되어졌다.

표 15. 반찬 준비시 가장 고려하는 요소

상황 변수	집 단	영 양	비 용	조리시간	주부의 입 맛	가족의 식 성	합 계	비 고					
		N(%)	N(%)	N(%)	N(%)	N(%)	N(%)						
연령	20대	5( 8.9)	0	0	6(10.7)	45(80.4)	56(100)	$\chi^2=27.98$ df=12 p<0.01					
	30대	19(30.0)	0	0	0	45(70.0)	64(100)						
	40대	9(15.0)	1(1.7)	1( 1.7)	4( 6.6)	45(75.0)	60(100)						
	50대 이상	8(13.8)	2(3.4)	3( 5.2)	3( 5.2)	42(72.4)	58(100)						
직업	유 무	11(15.7) 30(17.9)	0 3(1.8)	2( 2.9) 2( 1.2)	6( 8.6) 7( 4.2)	51(72.9) 126(75.0)	70(100) 168(100)	N.S.					
	교육 수준	국졸 중졸 고졸 대졸 대원졸	1( 7.1) 0 23(20.0) 16(21.6) 1( 9.1)	0 0 3(2.6) 0 0	0 2( 8.3) 2( 1.7) 0 0	0 0 5( 4.4) 6( 8.1) 2(18.2)	13(92.9) 22(91.7) 82(71.3) 52(70.3) 8(72.7)		14(100) 24(100) 115(100) 74(100) 11(100)	$\chi^2=26.39$ df=16 p<0.05			
가족 형태	핵가족 시댁확대가족 친정확대가족 기타	37(19.2) 4(12.9) 0 0	2(1.0) 0 0 1(0.9)	3( 1.6) 0 1(10.0) 0	13( 6.7) 0 0 0	138(71.5) 27(87.1) 9(90.0) 3(75.0)	193(100) 31(100) 10(100) 4(100)	$\chi^2=89.67$ df=12 p<0.001					
	주거 형태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일반주택	13(16.9) 8(16.0) 20(18.0)	2(2.6) 0 1(0.9)	1( 1.3) 1( 2.0) 2( 1.8)	11(14.3) 0 2( 1.8)	50(64.9) 41(82.0) 86(77.5)		77(100) 50(100) 112(100)		$\chi^2=19.92$ df=8 p<0.05		
		월 수입 (만원)	60미만 60이상~100미만 100이상~140미만 140이상~180미만 180이상~220미만 220이상~260미만 260이상~300미만 300이상	2(33.3) 12(18.8) 10(17.9) 3(6.5) 5(15.6) 0 3(37.5) 6(37.5)	0 0 0 0 3(9.4) 0 0 0	0 2( 3.2) 0 1( 2.2) 1( 3.1) 0 0 0	0 3( 4.7) 3( 5.4) 2( 4.3) 0 5(50.0) 0 0		4(66.7) 47(73.3) 43(76.8) 40(87.0) 23(71.9) 5(50.0) 5(62.5) 10(62.5)			6(100) 64(100) 56(100) 46(100) 32(100) 10(100) 8(100) 16(100)	N.S.
			합 계	41(17.2)	3(1.3)	4( 1.7)	13( 5.4)		177(74.4)			238(100)	

3) 반찬준비 및 상차림 횟수

주부들이 반찬을 준비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주부의 연령( $p < 0.01$ ), 교육수준( $p < 0.05$ ), 가족형태( $p < 0.001$ ) 및 주거형태( $p < 0.05$ )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각 연령대 모두 가족의 식성이 최우선이고 다음으로 영양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표 15). 이<sup>9)</sup>의 보고에서도 맛(43%), 영양(43.1%)으로 중시한다고 했고, 농촌주부의 경우<sup>12)</sup>에는 맛, 다음이 재료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영양의 배려 비율이 낮음을 볼 수 있었다. 김<sup>7)</sup>의 보고에서는 가족의 식성(56.6%), 영양(23.2%), 맛(17.1%)순으로 고려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영양면을 중시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가족의 식성과 맛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으나 본 결과에서 교육수준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김<sup>7)</sup>의 결과와 달랐다. 전보<sup>6)</sup>에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 가족의 식성, 주부의 입맛, 영양, 비용, 조리시간 순이라 했는데 본 조사에서도 가장 고려하는 사항이 가족의 식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영양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1끼 식사에 준비하는 반찬 수는 아침식사에 반찬수가 3~4가지(55.9%), 점심식사에 반찬 3~4가지(63.7%), 저녁식사에 5~6가지(59.6%)를 준

비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16). 위의 결과들로 보아 주부들이 저녁식사에 더욱 치중하는 경향을 알 수가 있다. 전보<sup>6)</sup>에서 아침식사에 반찬수가 4~5가지, 점심에는 2~3가지, 저녁에는 5~6가지가 높은 비율이었다는 결과를 비교해 보면 아침과 저녁식사에 준비하는 반찬가지 수는 비슷한 결과였으나 점심식사의 반찬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아 점심식사의 비중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1일 3끼의 영양배분이 저녁 1끼에 치중되 고루 배분되는 것이 영양상 바람직하게 여겨졌으나 시간 관리상 반찬수를 늘리는 것보다 영양을 고려한 일품요리의 준비도 식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일 1끼 식사의 상차림 횟수는 주부의 연령( $p < 0.001$ ), 직업 유무( $p < 0.005$ ), 교육수준( $p < 0.001$ )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표 13). 20, 30대 주부군들에서는 1회가 가장 높았고, 40, 50대 이상 주부군들은 2회가 가장 높았다. 전보<sup>6)</sup>에서 가족수가 많고 주부의 연령이 많고 가정의 수입이 많은 집단, 중졸·고졸 주부의 상차림 횟수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본 결과도 같았다.

주부들이 2회 이상 상차림하는 이유로 20, 30대 주부군들은 아이들의 등교시간(25.8, 39.5%), 남편의 출근시간(14.8, 21.1%), 남편의 늦은 귀가시간(14.8, 7.9%), 윗어른 상차림을 따로 한다(14.8, 13.2%)

표 16. 1끼 식사에 준비하는 반찬수

		연령대				합 계 N(%)	비 고	
		20대 N(%)	30대 N(%)	40대 N(%)	50대이상 N(%)			
식사시간별	아침식사	1~2가지	8( 15.1)	11( 19.6)	9( 15.0)	9( 15.5)	37( 16.3)	N.S.
		3~4가지	30( 56.6)	33( 58.9)	29( 48.4)	35( 60.4)	127( 55.9)	
		5~6가지	15( 28.3)	12( 21.4)	20( 33.3)	14( 24.1)	61( 26.9)	
		7~8가지	0	0	2( 3.3)	0	2( 0.9)	
	합계	53(100.0)	56(100.0)	60(100.0)	58(100.0)	227(100.0)		
점심식사	1~2가지	11( 25.0)	9( 18.4)	18( 32.1)	16( 30.8)	54( 26.9)	N.S.	
	3~4가지	31( 70.5)	37( 75.5)	29( 51.8)	31( 59.6)	128( 63.7)		
	5~6가지	2( 4.5)	3( 6.1)	9( 16.1)	5( 9.6)	19( 9.4)		
	합계	44(100.0)	49(100.0)	56(100.0)	52(100.0)	201(100.0)		
저녁식사	3~4가지	10( 17.9)	20( 31.3)	17( 28.3)	21( 35.0)	68( 28.3)	$\chi^2=14.84$ df=6 p<0.05	
	5~6가지	41( 73.2)	39( 60.9)	29( 48.4)	34( 56.7)	143( 59.6)		
	7~8가지	5( 8.9)	5( 7.8)	14( 23.3)	5( 8.3)	29( 12.1)		
	합계	56(100.0)	64(100.0)	60(100.0)	60(100.0)	240(100.0)		

순이었고 40, 50대 이상 주부군들에서는 아이들의 등교시간(43.2, 45.8%), 아이들의 늦은 귀가시간(25.0, 22.9%), 남편의 출근시간(18.2, 12.5%) 순이었다. 이는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났으며 ( $p < 0.05$ ) 즉 나이가 많을수록 아이들의 등교시간과 늦은 귀가시간 때문이 높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남편의 늦은 귀가시간, 웃어른 상차림 때문이라는 비율이 높았다.

4) 가사 담당자 및 가족의 가사 보조도

가정에서 부엌일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은 20대 주부군에서는 주부(83.9%), 시어머니(14.3%) 순으로 높았고, 30대 주부군에서는 주부(90.4%), 파출부·친정어머니·친척(3.2%) 순이었다. 40대 주부군에서는 주부(96.7%), 딸(3.3%) 순으로 높았고, 50대 이상 주부군에서는 주부(98.3%)가 가장 높았다. 취업 주부군에서는 전업주부군보다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파출부의 비율이 높았으며 유의적인 차이가 났다. 교육수준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주부의 부엌일 담당비율이 낮아지고 파출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의 담당비율이 높아지고 유의적인 차이가 났다( $p < 0.01$ ). 전보<sup>6)</sup>와 비교해 보면 가정에서 가사일을 하는데 있어 점차적으로 파출부(가정부)의 의존도가 낮아졌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상주 가정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파출부에게 부엌일을 시키는 비율이 낮아졌음을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주부들의 부엌일의 전담량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더욱더 가족의 부엌일에 대한 높은 보조도와 부엌일의 간소화 및 편리를 위해 조리기기를 이용한 홈오토메이션을 도입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사일 중 특히 부엌일에서 남편이 자주 도와주는 일의 빈도수를 보면 20대 주부군에서는 수저 놓기(47.1%), 밥짓기(21.4%), 상 차리기(19.6%), 설거

표 17. 1일 1끼 식사의 상차림 횟수

상황 변수	집 단	1회	2회	3회	4회	합 계 N(%)	비 고
		N(%)	N(%)	N(%)	N(%)		
연령	20대	38(67.9)	12(21.4)	5( 8.9)	1( 1.8)	56(100)	$\chi^2=39.81$ df=9 $p < 0.001$
	30대	41(64.0)	20(31.3)	2( 3.1)	1( 1.6)	64(100)	
	40대	15(25.0)	34(56.7)	9(15.0)	2( 3.3)	60(100)	
	50대 이상	23(38.3)	28(46.7)	3( 5.0)	6(10.0)	60(100)	
직업	유	41(58.6)	29(41.4)	0	0	70(100)	$\chi^2=14.03$ , df=3 $p < 0.005$
	무	76(44.7)	65(38.2)	19(11.2)	10( 5.9)	170(100)	
교육 수준	국졸	7(50.0)	6(42.9)	1( 7.1)	0	14(100)	$\chi^2=34.04$ df=12 $p < 0.001$
	중졸	7(29.2)	9(37.5)	2( 8.3)	6(25.0)	24(100)	
	고졸	56(48.3)	44(37.9)	12(10.3)	4( 3.5)	116(100)	
	대졸	40(53.4)	31(41.3)	4( 5.3)	0	75(100)	
	대원졸	7(63.6)	4(36.4)	0	0	11(100)	
가족 형태	핵가족	103(53.4)	69(35.8)	13( 6.7)	8( 4.1)	193(100)	N.S.
	시대확대가족	12(38.7)	14(45.2)	3( 9.7)	2( 6.5)	31(100)	
	친정확대가족	2(20.0)	7(70.0)	1(10.0)	0	10(100)	
	기타	0	4(80.0)	2(20.0)	0	6(100)	
주거 형태	아파트	45(58.4)	24(31.2)	6( 7.8)	2( 2.6)	77(100)	N.S.
	다세대·연립주택	24(48.0)	22(44.0)	2( 4.0)	2( 4.0)	50(100)	
	일반주택	48(42.5)	48(42.5)	11( 9.7)	6( 5.3)	113(100)	
합 계		117(48.8)	94(39.1)	19( 7.9)	10( 4.2)	240(100)	
1980년의 전보결과 합 계		162(46.8)	131(37.9)	38(11.0)	15( 4.3)	346(100)	

지(19.6%), 상 나르기(16.1%) 순이었고, 30대 주부군에서는 수저 놓기(30%), 설거지(17.2%), 밥짓기(10.9%), 시장보기(8%) 순이었다. 40대 주부군에서는 밥짓기(11.7%), 상 차리기(19.0%), 설거지(8.3%), 수저 놓기(6.8%), 시장보기(6.7%)였으며, 50대 이상 주부군에서는 상 차리기(13%), 수저 놓기

(12.2%), 설거지(11.1%), 밥짓기(5.8%) 순이었다. 주부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남편이 도와주는 일의 종류 및 빈도수가 낮아짐을 볼 수 있었다.

가사일 중에서 가족의 도움을 가장 바라는 일은 주부 모두 설거지(41.3%), 시장보기(14.2%), 상 나르기(8.8%), 부엌청소(6.3%), 김치 담그기(5.4%),

표 18. 부엌일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

상황 변수	집 단	주 부	딸	파출부	시아머니	친 정 어머니	친 척	합 계	비 고
		N(%)	N(%)	N(%)	N(%)	N(%)	N(%)	N(%)	
연령	20대	47(83.9)	0	0	8(14.3)	1( 1.8)	0	56(100)	X <sup>2</sup> =38.32 df=15 p<0.001
	30대	56(90.4)	0	2( 3.2)	0	2( 3.2)	2(3.2)	62(100)	
	40대	58(96.7)	2( 3.3)	0	0	0	0	60(100)	
	50대 이상	59(98.3)	1( 1.7)	0	0	0	0	60(100)	
직업	유	56(82.4)	0	2( 2.9)	5( 7.4)	3( 4.4)	2(2.9)	68(100)	X <sup>2</sup> =17.96 df=5, p<0.005
	무	162(95.2)	3( 1.8)	1( 0.6)	3( 1.8)	1( 0.6)	0	170(100)	
교육 수준	국졸	14(100.0)	0	0	0	0	0	14(100)	X <sup>2</sup> =38.70 df=20 p<0.01
	중졸	24(100.0)	0	0	0	0	0	24(100)	
	고졸	105(91.3)	3( 2.6)	1( 0.9)	4( 3.4)	1( 0.9)	1(0.9)	115(100)	
	대졸	67(90.5)	0	0	4( 5.4)	2( 2.7)	1(1.4)	74(100)	
	대원졸	8(72.7)	0	2(18.2)	0	1( 9.1)	0	11(100)	
가족 형태	핵가족	186(96.9)	3( 1.6)	0	0	1( 0.5)	2(1.0)	192(100)	N.S.
	시댁확대가족	23(74.2)	0	0	8(25.8)	0	0	31(100)	
	친정확대가족	5(50.0)	0	2(20.0)	0	3(30.0)	0	10(100)	
	기타	4(80.0)	0	1(20.0)	0	0	0	5(100)	
주거 형태	아파트	2( 2.6)	2( 2.6)	0	0	0	0	77(100)	N.S.
	다세대·연립주택	42(87.5)	0	0	4( 8.3)	2( 4.2)	0	48(100)	
	일반주택	103(91.2)	1( 0.9)	1( 0.9)	4( 3.4)	2( 1.8)	2(1.8)	113(100)	
월 수입 (만원)	60미만	6(100.0)	0	0	0	0	0	6(100)	N.S.
	60이상~100미만	58(90.6)	0	0	5( 7.8)	1( 1.6)	0	64(100)	
	100이상~140미만	55(96.5)	0	0	2( 3.5)	0	0	57(100)	
	140이상~180미만	39(86.7)	3( 6.7)	0	0	2( 4.4)	1(2.2)	45(100)	
	180이상~220미만	30(93.8)	0	1( 3.1)	1( 3.1)	0	0	32(100)	
	220이상~260미만	8(80.0)	0	2(20.0)	0	0	0	10(100)	
	260이상~300미만	7(87.5)	0	0	0	1(12.5)	0	8(100)	
	300이상	15(93.8)	0	0	0	0	1(6.2)	16(100)	
가사 형태	주부 혼자 한다	97(99.0)	0	0	0	1( 1.0)	0	98(100)	X <sup>2</sup> =221.23 df=20 p<0.001
	가족이 도운다	109(88.7)	1( 0.8)	0	8( 6.5)	3( 2.4)	2(1.6)	123(100)	
	상주 가정부 있다	0	0	2(100.0)	0	0	0	2(100)	
	매일 파출부 온다	2(50.0)	1(25.0)	1(25.0)	0	0	0	4(100)	
	일있을 때만 파출부를 부른다	10(90.9)	1( 9.1)	0	0	0	0	11(100)	
	합 계	218(91.6)	3( 1.3)	3( 1.3)	8( 3.3)	4( 1.7)	2(1.7)	238(100)	

상 차리기(4.6%), 반찬 만들기(3.8), 밥 짓기(1.7%) 순으로 가족이 도와주기를 원했다. 전보에서는 상 나르기(56.4%), 설거지(31.5%), 상 차리기(30.6%), 시장보기(28.9%), 반찬 만들기(7.5%), 밥짓기(2.6%) 순으로 도움을 원했는데 이를 비교해 보면 가족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일의 비율이 낮아졌음과 일의 순위도 달라졌음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부엌의 구조가 개선되어 식탁사용이 증가했으며, 취사작업이 편리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1980년에서 현재(1993. 3)까지 우리 나라는 빠른 경제성장과 현대화로 인한 생활양상의 변화가 가속화되었는데 특히 식품산업 발전의 가속화로 다양한 식품의 생산과 더불어 구매력이 증대되었고<sup>5)</sup> 이러한 과정에서 식생활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 오늘날 주부들의 식생활관리형태를 조사한 결과를 1980년의 전보와 비교 종합해 볼 때 식생활비 사용과 식품의 구입형태는 여전히 비계획적인 면이 많았으며 식생활관리의 전반적인 행동면 즉 밥짓는 횟수, 김치 담그는 횟수 및 형태, 식사 때 준비하는 반찬수 등에서 서서히 변해 가는 변화들을 볼 수가 있었다. 오<sup>13)</sup>는 우리 나라 식생활을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전통적, 비전통적인 식생활 사고와 행동이 수정의 형식(A→A')으로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서구적인 식생활양식으로의 급속한 변화(A→B)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했으며, 이<sup>14)</sup>는 우리 나라 주부들은 가사 노동의 사회화 태도에서 의생활, 주생활 영역은 사회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에 식생활 영역은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면에서 본 결과로 볼 때 우리 나라 주부들의 식생활관리형태는 사회의 급변화 속에서도 사회화가 느리고 수정형식으로 변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었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1980년에서 현재(1993. 3)까지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오늘날 가정에서의 식생활관리형태를 조사하여 1980년 전보와 비교해 그 동안의 식생활관리형태의 변화 중에서 문제점을 규명하여 개선점을 찾고자 실시하였다.

##### 1. 주방의 구조 및 조리기구

주방의 구조는 85% 이상이 입식구조였고, 취사용 연료로 LPG·도시가스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비효율적이고 사용이 불편한 연탄·석유의 사용이 현저하게 줄었다. 가정용 조리기구도 다양해졌고 보유율도 높아졌다. 이로 보아 주방의 환경이 매우 좋아졌으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가정의 부엌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겠으며 다양한 조리기구의 활용면에 더 관심을 갖고 연구 검토해야겠다.

##### 2. 식생활비 계획 및 식품구입 형태

식생활비 사용시 계획 세우는 비율은 66.7%, 무계획은 33.3%였는데 이는 전보보다 무계획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늘어났음을 볼 수 있었다. 무계획 사용의 이유는 습관이 안되어서, 물가 변동이 심해서, 귀찮아서 순이었다. 식품의 구입형태는 필요할 때마다 구입한다(81.4%)와 구입횟수로 매일 구입한다(31.1%)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매우 비계획적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주부들의 식생활 계획을 보다 더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컴퓨터 사용을 권장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식생활관리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활화하는 방안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된다.

##### 3. 식생활관리 행동

- 1) 식사준비시간은 아침·점심식사는 60분 정도가 가장 많았고 저녁식사는 90분 정도가 가장 많았으며 뒤처리시간은 아침·점심식사에 20분 정도, 저녁식사에는 40분 정도가 가장 많았다. 식사준비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으로 가공식품과 반가공식품을 이용하고, 식품유통과정에서 식품의 폐기율을 낮추어 판매하면 조리시 식품을 다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또 조리시 조리의 순서와 계통을 미리 파악하여 조리하는 습관을 익히면 훨씬 효과적으로 조리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사료된다.
- 2) 밥짓는 횟수는 1일 2회(58.8%)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1일 1회(33.3%)의 비율이 증가됨을 볼 수 있어 밥짓는 횟수가 줄어들음을 볼 수 있

다.

- 3) 김치는 집에서 담가먹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김치 담그는 횟수는 15일에 1번(44.4%), 1달에 1번(20.5%) 순으로 높아 김치 담그는 횟수가 줄어든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로 보아 냉장고의 높은 보급률과 좋아진 성능으로 김치의 장기저장이 가능해진 것과 김치를 먹는 양이 준 것이 아닌가 사료되었으며 앞으로 파는 김치를 사 먹지 않는 이유를 규명하여 주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 4) 반찬 준비시 가장 고려하는 점은 가족의 식성(74.4%), 영양(17.2%) 순이었고 이는 1980년대 보다 영양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아졌음을 볼 수가 있었다. 앞으로 주부들의 영양교육을 이론위주가 아니고 가족의 식성과 영양을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는 실용화된 영양교육방안이 세워져야겠다.
- 5) 1끼 식사에 준비하는 반찬수는 아침식사 3~4가지, 저녁식사 5~6가지로 1980년의 결과와 변화가 없었으나 점심식사에 3~4가지가 가장 높아 점심식사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영양상으로는 매우 좋은 현상이나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의 증가를 뜻하므로 점심식사는 일품요리를 권장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여겨졌다.
- 6) 1끼 식사 상차림 횟수는 1회(48.8%), 2회(39.2%) 순으로 많았고 2회 이상 상차림의 이유로 아이들의 등교시간(40.1%), 남편의 출근시간, 아이들의 늦은 귀가시간 순으로 나왔다.
- 7) 가정에서 부엌일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은 주부(91.6%)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연령이 많을수록 본인이 하는 비율이 높았고, 파출부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엌일의 의존도는 매우 낮아졌음을 볼 수 있었다.
- 8) 부엌일 중에서 가족의 도움을 가장 바라는 일은 설거지(41.3%)가 가장 높았고 상 내리기(8.8%) 낮아 전보에서 상 내리기(56.4%)가 가장 높았던 것과 달리 차이가 많이 난 것은 그동안 부엌구조의 개선과 생활의 입식화로 식탁

사용 증가 때문인 것으로 여겨졌다.

이상의 결과들로 보아 급속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주부들의 식생활관리형태는 두드러진 큰 변화는 없으나 서서히 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특히 가사노동의 환경 개선과 더불어 보다 과학적이고 계획적인 식생활관리를 위해서 부엌 조리기기의 자동화가 추진되어야겠다. 또 한편으로 주부들의 가사노동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하려면 식생활의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영양 관리상 주부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영양가 높고 저렴하며 위생적인 사회화된 상품들이 개발되어야겠다.

## V. 참고문헌

1. Eckstein, Food, People & Nutrition, Avi., 1980.
2. 현기순 : 식생활관리, 교문사, 1988.
3. 윤서석, 안명수, 안숙자 : 식생활관리, 수학사, 1988.
4. Faye Kinder : Meal mangement,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5.
5. 권태완, 강세기 : 식품공업의 발달과 우리의 식생활, 식문화학회 추계학술대회(식생활 최근 50년 변화), 1993.
6. 유영상 : 식생활관리, 대한가정학회지, 18(1):53~66, 1980.
7. 김혜경 : 주부들의 영양교육을 위한 사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5(2):55~67, 1987.
8. 임정빈, 서병숙, 이효지, 장유경 : 라이프 스타일과 식생활, 대한가정학회지, 28(3):33~52, 1990.
9. 이기춘, 이은영, 이기영, 황인경, 김민자, 김영옥 : 산업사회의 소비자 행동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2):115~132, 1989.
10. 손경희, 문수재, 이명희 : 도시주부의 식품소비구조변화의 미래의 식생활향상을 위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4):53~65, 1988.
11. 문숙재, 홍성희 :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가사노

- 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3)  
:153~169, 1988.
12. 유호경, 오희선, 이호열 : 경남지역 농촌 의·식·주생활 양식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가정 학회지, 28(1):157~183, 1990.
13. 오세영 : 생물학적, 문화학적 측면에서 본 한국인의 식생활 행동, 식문화학회 추계학 술대회 (식생활 최근 50년 변화), 1993
14. 이수정, 문숙재 :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209~226, 1991.